

# 농촌 의료사막화 해소 ‘해피BUS데이’ 시동

전남도·농협본부, 장흥서 발대식…농촌복지 확대  
올해 왕진버스 40회 운영…대학생 재능기부봉사도

전남도는 14일 장흥 대덕 다목적복지관에서 ‘2025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열어 올 한 해 농촌 의료사막화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발대식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참여해 농촌 의료복지 확대의 시작을 알렸다.

‘해피BUS데이’는 농촌의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까운 병원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협 전남본부는 올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왕진버스와 대학생 재능기부를 하나로 결합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및 지자체, 농협이 협력해 의료기관과 함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며, 지난 3월 서영암농협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13개 시군에서 실시

예정이다.

대학생재능기부는 대학생 농업·농촌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및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광주대학교를 비롯해 총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김성 장흥군수, 이정환 원광대 장흥통합병원장, 관내 조합장,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양·한방 의료·검안, 연세대학교 스포츠재활연구소의 근육격격 질환관리, 농가주부모임 전남지회의 음식 제공, 광주대학교의 사진 촬영과 네일아트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무료봉사가 이뤄졌다.

특히 발대식의 핵심 정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전남도-시·군-농협이 협업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의료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장흥 대덕다목적복지관에서 열린 ‘전남농협 해피BUS데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농, 외국인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이며, 사업 추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 점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명칭한 부지사는 “농촌지역은 지방소

멸 위기에서 식품 사막화뿐만 아니라 의료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해피BUS데이 행사를 기점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남형 찾아가는 농촌 생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적극 협력해 종합농촌복지서비스인 해피BUS데이가 농촌 곳곳을 더 많이 찾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은 올해 13개 시·군, 68개 읍·면 등 총 40회 1만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식량·농촌정책 전문가…오늘 취임식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부담당,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



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했다. 특히 30여년간 농업·농촌 정책 전반을 이끌어 온 정통 농정관으로, 농어촌공사와 밀접한 식량정책·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15일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수협-전남도, 수산업 발전방향 논의·협력 정책토론회 열고 수산 현안·정책 지원 방안 공유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최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전남 관내 수협과 ‘수산업 발전방향 논의 및 협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강진군, 목포,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도소안, 진도군, 해남군, 장흥군, 거문도, 고흥군, 나로도, 여수, 전남동부, 근해유망, 전남정지망, 제3·4구집수기, 서남해수어류양식, 전남서부어류양식, 민물장어양식, 근해안강망 수협 등 전남 지역 21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조합별 애로사항과 수산 현안,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는 조합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합의 생생한 현장안건, 영광군, 완도군, 완도소안, 진도군, 해남군, 장흥군, 거문도, 고흥군, 나로도, 여수, 전남동부, 근해유망, 전남정지망, 제3·4구집수기, 서남해수어류양식, 전남서부어류양식, 민물장어양식, 근해안강망 수협 등 전남 지역 21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조합장들은 각 조합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전남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4일 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HRDK)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 관련 제도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맞춤형 직무교육,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게 된다.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 공모사업 본격화

### 한전KDN, 컨소시엄협력 협약 지역계통 안정·신사업 창출 등

한전KDN은 최근 영암군청에서 14개 기관과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사업 지정을 위한 컨소시엄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참여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영암군을 비롯해 LS일렉트릭, 한국전기연구원, EIPGRID, MC에너지, 목포대학교, HD현대상호,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지정을 위한 평가 대응 등에 적극 협력으로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인 ‘Self-DR 기반 수



한전KDN은 최근 영암군청에서 14개 기관과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사업 지정을 위한 컨소시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요반응 실증’과 ‘공공형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구축’ 중심의 실증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과 소비하는 분산자원 통합 관제 등에 집중하고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지역회폐 등으로 환원한다.

한전KDN은 지역에 생산, 소비, 거래되는 모든 분산에너지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내 산·학·연 기관에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협약 실현에 노력하는 것은 전남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 계통포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을 ‘자산지소’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체적 사업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타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공개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컨텍 교원창업기업 노원비하인드

### AI교실 플랫폼, 강소특구 전략기술사업 선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컨텍)는 교원창업기업 노원비하인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강소특구 전략기술 R&B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원비하인드는 인공지능 교실 ‘Active Learning Classroom (ALC)’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한국에너지공대 교원이 설립한 교원창업기

업이다.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진입한 첫 한국에너지공대 교원창업기업으로 에너지공대의 기술 창업 모델을 대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선정된 노원비하인드는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의 ALC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학습 분석(Multimodal Learning Analytics

) 기술을 고도화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비하인드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1년 간 약 3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강소특구 전략기술 R&BD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지역 특화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해, 딥테크 중심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올해는 8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노원비하인드는 AI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이승훈 기자

## ECONOMY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 KCA, 1분과학과 ‘전파로그’ 제작

유튜브 ‘크카TV’서 목요일 방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구독자 90만명을 보유한 과학스토리텔러 ‘1분과학’과 함께 ‘전파로그’를 제작해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KCA는 역사스토리텔러 ‘썬킴’의 ‘전파사전’ 콘텐츠의 호응에 힘입어 과학스토리텔러인 ‘1분과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관의 다소 어려운 주요 업무 분야를 과학과 접목해 ‘전파로그’ 총 5편의 콘텐츠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과학스토리텔러 ‘1분과학’은 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인기 유튜브이며, ‘전파로그’는 KCA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인 ‘크카TV’를 통해 매주 목요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상훈 KCA 원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인 KCA이지만 수행업무가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콘텐츠 제작과 눈높이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과 항상 소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삼성, 유럽 최대 공조기업 인수

독일 플렉트 2조4000억원 계약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을 인수, 고성장하는 글로벌 공조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렉트 자본 100%를 15억 유로(약 2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조단위 인수합병(M&A) 성사는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 인수 작업이 완료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플렉트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플렉트는 1918년 설립된 100년 역사의 글로벌 공조 기업으로, 고객별 니즈에 맞춘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업과 설계 역량을 갖췄다.

그동안 안정적 냉방이 필수인 대형 데이터센터를 비롯 민감한 고사·유물을 관리하는 박물관·도서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터미널, 항공·항은·항습이 중요한 대형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고품질·고효율 공조 설비를 공급해왔다.

특히 글로벌 대형 데이터센터 공조 시장에서 뛰어난 제품 성능과 안정성, 신뢰도 있는 서비스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냉각액을 순환시켜 서버를 냉각하는 액체냉각 방식인 CDU(Coolant Distribution Unit)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냉각 용량, 냉각효율의 제품군을 확보했다.

작년에는 데이터센터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DCS 어워드 2024’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차별화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플렉트는 데이터센터 외에도 글로벌 탑 제약사, 헬스케어, 식음료, 플랜트 등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폭넓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공조사업은 지구온난화, 친환경 에너지 규제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공조사업 중 공향, 소평몰, 공장 등 대형 시설 대상 중앙공조 시장은 2024년 610억달러에서 2030년 990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이 예상된다.

이 중 데이터센터 부문은 2030년까지 441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로 공조 시장을 이끌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로벌 톱 티어 공조업체 플렉트를 전격 인수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은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합뉴스

## MG손보 영업정지…보험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151만건에 달하는 MG손보 보험 계약은 올해 2~3분기 가교 보험사로 1차 계약이 이전되고 내년 말까지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